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7주일
제31권 13호(가혜) 2011-2-20

[묵상]



율법과 계명을 폐지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신 예수님,
형제에게 성을 내지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마라
허튼 맹세를 하지마라
이런 말씀만으로도 힘겨운 저희에게
율법과 계명의 완성은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임을 강조하십니다.

이웃은 당연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악인에게 맞서지 말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남들처럼 사랑하고 남들만큼만 잘하고픈
그래서 외면하고픈 저희에게
하늘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선인 악인 가리지 않고
주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처럼
저희의 사랑이 완전해야한다고 하십니다.

당신이 완전하니 저희도 완전해야한다고 하시니
저희를 바라보시는 당신의 마음만큼이나
저희의 가슴도 답답해옵니다. - 框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예비자 교리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4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특전미사	(생)
주 일 낮 미사	(연) 윤재림 마리아, 박송희, 고준희 제임스, 이현호 요한, 이성범, 강재황 루카, 윤희중, 엄은섭 도로테오
	(생) 이덕철 루카 & 이순자 비비안나, 이재정 사도요한, 김형미 데레사, 이경용 야고보, 홍요셉 엄제니 클라우디아 & 엄조이 아폴로니아, 나기윤 로렌조 & 나정숙 세실리아 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레위기(Leviticus) 19,1-2.17-18

화답송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들의 허물을 멀리 치우시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

제 2독서 코린토 1서(1 Corinthians) 3,16-23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

복 음 마태오(Matthew) 5,38-48

영성체송 주님, 당신의 기적들을 날날이 전하오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 하며, 당신 이름 찬미하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96	249	250
봉헌	361	257	264
성체	286	286	304
파견	233	227	228

3. 살인하지 못한다 - 하느님의 신성한 법-

▶생명의 "증진"

그것들은 사람들간의 유대를 되돌이킬 수 없이 거스르는 행위이며, 한 사람의 생명을 하느님께서 향하게 하는 근본적인 결정에 맞서는 행위이다.

이런 의미에서 윤리 금령들은 지극히 중요한 긍정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 규정들이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아니오"는 자유인들이 결코 그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되는 절대적인 하한선을 분명히 밝혀준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반드시 존중해야 하는 최소한의 것을 가리킨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최소한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예"는 점차적으로 선의 완전한 지평(마태 5,48 참조)을 받아들이게 될 "예"이다. 계명들, 특히 윤리 금령들은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행의 시작이며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이다. 성 아우구스티노가 말하듯이 "자유"의 시작은 살인, 간음, 절도, 사기, 신성 모독 등과 같은 범죄로부터의 자유로움에서 비롯된다. 사람이 이러한 범죄로부터 벗어나면(모든 그리스도교인은 범죄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유를 향해 머리를 들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며, 완전한 자유는 아니다."

76). 그러므로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은 참된 자유를 향한 출발의 기준점을 세워준다. 이 계명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생명을 증진하도록 이끌어주며, 생명을 위해 봉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발전시키도록 이끌어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향한 의무를 실행에 옮기며, 우리의 행위와 진리 안에서, 생명의 위대한 선물을 주신 하느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게 된다.(시편 139,13-14 참조).

창조주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그의 책임감 있는 보살핌에 맡기셨으며, 그것을 자의적으로 이용하도록 맡기신 것이 아니라, 지혜로써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실하게 돌보도록 맡기신 것이다. 계약의 하느님께서, 주고받는 상호성에 따라서, 자신을 내어주고 타인을 받아들이는 법칙에 따라서, 각 개인의 생명들을 그의 동료 인간들, 형제자매들에게 맡기셨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때가 왔을 때 우리를 위해 강생하시어 당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이 법칙이 어느 정도의 높이와 깊이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상호성에 새로운 내용과 의미를 부여하시며, 서로에게 맡겨진 우리의 존재에 새로운 내용과 의미를 부여하신다. 사랑 안에서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들 사이에 새로운 형제애와 연대성을 이룩해 주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께서 지니신 신비한 상호 자기 증여의 참된 반영을 이루어주신다. (◆계속)

마음의 진화

아인슈타인의 이론 중에는 작은 물질이라도 그것을 없앤다면 큰 에너지로 변환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은 반대로 큰 에너지가 작은 물질로 변할 수도 있다는 이론입니다. 물질이 변해서 에너지가 되는 것이 원자폭탄이라면 에너지가 변해서 물질이 되는 것이 창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으로 눈에 보이는 우주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들은 길고 긴 시간 동안 진화를 계속하여 지금의 동·식물이 되고 인간도 되었습니다. 동·식물과 달리 인간은 기술문명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문자와 음악과 동영상도 허공에 가득 떠다니고, 뇌파만으로 컴퓨터를 작동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생각하는 대로 실체가 되는 세상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므로 단순히 그런 발전이 행복을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은데 수백만 마리의 가축을 땅에 묻어야 하는 일도 있고, 인류는 언제든지 스스로를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술문명이 발전하여 우리 몸은 편해졌다지만 마음은 그리 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이 완전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 완전함은 무엇입니까? 그 완전함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긴 세월의 진화에 성공해서 지금은 편리하게 생활하며 다른 동·식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자멸할 수 있는 자유

까지 지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에 이르려면 다른 측면의 진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마음의 진화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진화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을 계속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진화를 멈추면 도태되고 죽습니다. 마음의 진화도 어려운 일이고 그것을 멈추면 영혼이 죽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악인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일, 즉 오른뺨을 맞았을 때 다른 뺨마저 대주고, 싫은 사람과 함께 걸어가주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고통이 따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도 나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과 손해를 통해야만 우리 마음은 진화합니다. 하느님을 닮은 완전함을 향해서 진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과 손해의 멍에를 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하느님은 그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완전함에 초대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도 있고, 곱게 늙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는 그 육체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대로 된 인격...

◆고찬근 루카 신부 /서울대교구 성소국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윤희 스테파니아	신덕례 테레사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박희자 마리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이상철 크리스토퍼	송현식 바오로
제2독서자	서현수 올리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독에 성화하는 백삼위"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본당 30주년기념 연중행사 스케줄 ◆

백삼위 공동체 설립 30주년 기념미사를 지난 6일 오스카 솔리스 지역 주교님을 모시고 은혜로히 봉헌했습니다.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연중 기념행사 스케줄을 알려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 나갑시다.

- 전신자 성경통독 : 1월1일~12월15일
- 묵주기도 30만단 바치기 : 1월10일~12월15일
- 본당 역사 자료 수집 : 1월1일~9월15일
- 성경퀴즈대회 : 1월~12월
- 체육대회 & 구역별 맞자랑 : 5월중
- 본당의 날(야외14처 봉헌 & 구역별 장기자랑) : 9월18일
- 백삼위 사진전 : 9월18일~9월24일
- 백삼위 서예전 : 9월18일~9월24일
- 30주년 감사미사 : 12월18일

◆ 본당 설립30주년의 해 예비자 환영식

본당 설립 30주년의 해에 전신자 봉헌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세례식 일정은 추후 알립니다.

- 일시 : 2011년 2월27일(주일) 낮미사 후, 강당
- 교리시간 : 3월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장소 : 2층 교리실
- 문의 : 복음화분과장 김충섭 마틴 ☎(213)820-7636

◆ 파나마 선교후원을 위한 2차 현금 있습니다.

- 일시 : 토요특전미사(19일), 주일미사(20일)
- 미사집전 : 김무웅 이나시오 신부(파나마 원주민 선교사목)

◆ 본당설립 30주년 기념 팸플렛 배부

- 일시 : 2월20일(주일)부터

◆ 제1회 백삼위 서예모임 작품전시회

- 전시기간 : 오늘 주일(20일)~2월 27일(주일)
- 축하 리셉션 : 20일 오후 1시30분, 강당
- 무료가혼 써주기 : 서예가협회장 일호 선생(한중일 초대작가)께서 백삼위 교우들을 위해 당일 가혼을 무료로 써드립니다. 문의 ☎(310)374-1572 이명렬 라파엘

◆ 재의 수요일에 사용할 성지 가지 회수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3월9일)에는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쓰이는 재는 지난해 나눠드린 성지가지를 태워서 사용합니다.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성지가지를 3월6일(주일)까지 성당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자모회 Early Bird 티켓 상품교환

- 일시 : 3월6일(주일) 선데이스쿨 수업후 점심시간
- 미사시간을 잘 지켜서 받은 티켓을 꼭 가져와서 예쁜 문방방용품과 악세사리 등을 교환해가십시오
- 문의 : 김유미 사비나 자모회 부회장 ☎(310)738-5305

◆ 주일학교 사순 피정

- 일시 : 4월1일(금)~3일(주일) 오후 4시 성당 출발
- 장소 : 테메칼라 꽃동네 피정센터
- 대상 : 7학년~12학년
- 참가비 \$50(\$70, 3월14일 이후)
- 신청마감 3월21일
- 접수 : 주일학교 교사실, 사무실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교장 ☎(310)780-0369

◆ 한국학교 휴강 안내

- 한국학교 : 20일(주일) 프레지던츠 데이 연휴 휴강
* 주일학교는 수업 있습니다.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2월20일(주일) : 토런스 동 1반(카래라이스 \$3)
- 2월27일(주일) : 토런스 서 1반(육개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고천용 권태만 김교복 김낙기 김양금 김영경 김유숙 김윤진 김재영 김정순 김정엽 김정웅 김정희 김호순 남성철 노혜숙 문충한 박광자 박인식 배태임 석순영 송기철 송재훈 송준규 신대철 안재만 엄혜은 원건희 윤희동 이경태 이귀란 이경용 이민상 이석진 이은록 이일길 이효세 장정진 정병훈 정정현 조소영 주영석 지경수 최금옥 최미열 최의수 최진수 한길선례
합계 : \$4,960	
미사헌금 : \$2,954	

성전헌금	고천용 권태만 김교복 김낙기 김양금 김유숙 김윤진 김정순 김정엽 김정희 김호순 남성철 노혜숙 문충한 박광자 박인식 석순영 신대철 안재만 엄혜은 원건희 윤희동 이경태 이귀란 이경용 이민상 이석진 이은록 이일길 이효세 장정진 주영석 지경수 최미열 최의수 최이원 최진수 한길선례
합계 : \$3,600	
감사헌금 : 이크리스&김찬구 박이레나 최은경	

남가주 소식

◆ FIAT재단 Appreciation Dinner 개최

- 일시 : 오늘 주일(20일 오후 5시~8시)
- 장소 : 성 토마스 한인천주교회(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 문의 : 김민정 켈리나 ☎(714)772-3995

◆ 골롬반 청소년 선교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 일시 : 3월5일(토) 낮 12시
- Royal Vista 골프코스
- 참가비 : \$100(라운딩, 카트, 디너 포함) ☎ (323)734-4946

◆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성소자 영어퍼정

- 일시 : 4월21일(목)~24일(주일)
- 주제 : Come and See!(와서 보라!)
- 대상 : 선교사제 성소에 관심있는 20~31세의 남성
- 장소 : 텍사스주 엘파소의 성골롬반 선교센터
- 신청기간 : 3월6일까지 선착순
- 문의 : 성소담당 최용훈 요셉 신부 ☎(323)388-7737

◆ 전신자 친구약 통독 8주간 암송 성구 ◆

* 2월21일(월) 예레미야

주님께 노래불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는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20,13)

* 2월22일(화)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싹을 돌아나게 하리라.
그 싹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이루리라.(22,5)

* 2월23일(수)

너희는 재발 저마다 재 악한길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오너라.
(25,5)

* 2월24일(목)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30,10)

* 2월25일(금)

나를 불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주고, 내가 물렸던 큰일
과 숨겨진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33,3)

* 2월26일(토)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는 끝내 교훈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작정
이냐?(35,13)

* 2월27일(일)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하여, 네가 칼에 맞아 쓰러지지 않게 하겠다.
(39,18)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다음 주 단체 모임

2월 사목회

오후 1시

소공동체 2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율리아나 920-5153	강순복 요세피나 850-6388 2/12(토)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김관구 요한 530-7702 2/12(토) 오후 7시 강당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2/18(금)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베스 989-0366	김대우 비오 378-8763 2/12(토) 오후 6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상규 다니엘 424-263-4581 2/22(화) 오후 7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2/7(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조정석 수산나 433-9075 2/18(금) 오후 7시30분 강당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박정람 마르시아 972-9193 2/9(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안희경 크리스티 나	이상철 크리스토퍼 818-6903 2/18(금) 오후 7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2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오혜숙 루시아 327-8035 2/11(금) 오후 7시
	3	대건화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화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이미령 엘리사벳 991-5895 2/12(토) 오후 7시30분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송종두 요한 544-1267 2/11(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안민수 베드로 544-8908 2/11(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김도완 다니엘 892-1213 2/11(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이영숙 수산나 544-5078 2/8(화) 오전 10시30분

주보로 배우는 교리

‘고해성사 어플리케이션(앱)’에 대하여...

☞ 일부 외신에 보도된 ‘고해성사 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고해성사가 가능하나요?

가톨릭 교회는 고해성사에 대해 고해 사제와의 일대일 만남을 통한 개별 고백만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고해성사는 전화나 이메일,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고해성사 역시 결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대면이 아닌 가상의 공간을 이용한 죄 고백은 기존의 고해성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출시된 ‘고해성사(Confession)’ : 로마 가톨릭 앱’은 일부 매체에서 보도하는 대로 ‘스마트폰에 대고 고해성사를 하는’ 도구가 아니라, 가톨릭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더 충실히 준비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앱)은 고해성사의 필수 준비단계인 양심성찰 자료, 고해성사 예식 순서, 보속을 위한 기도문을 담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앱의 User(사용자) 메뉴에 이름과 비밀번호, 신원정보를 등록한 뒤, Examination(양심성찰) 문항에 자신의 생활을 비추어 고해할 내용을 확인하여 체크합니다. 이 문항들은 심계명에 근거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Confession(고해) 메뉴는 고해성사 예식 순서를 안내하는 것으로, 양심성찰을 마친 사용자는 해당 메뉴의 안내를 따라 죄를 고백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이 메뉴의 끝부분에 성경 또는 가톨릭 성인들의 말씀을 팝업창으로 제공하여 고해성사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Prayer(기도) 메뉴는 고해성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반성기도’의 여러 양식을 제공합니다.

고해성사(Confession) 앱은 이 앱을 통해 고해성사를 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자신의 생활을 더욱 구체적으로 성찰하고 고해성사 예식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고해성사를 형식적이고 부담스러운 죄 고백이 아닌 진지한 성찰과 회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고자 제작한 ‘고해성사 도우미 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 안내문에 명시된 ‘교회 인가’(imprimatur)는 해당 매체(책, 동영상, 음반 등 여러형태의 발행물) 내

용이 가톨릭교회 교구의 검열을 받았고, 교회의 가르침에 부합하므로 교회의 이름으로 출판해도 좋다는 교구장 주교의 승인입니다. 이번 앱의 경우는 양심성찰 안내, 고해성사 예식 안내 등이 가톨릭 교리에 근거하였고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유익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인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 한국천주교주교회의<CBCK>

☞ 저는 기도가 잘 안됩니다. 시간을 내어 막상 기도하려면 잡생각만 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라.”(루가18,1)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에 가장 모범적이신 예수님을 보면 기도하시러 자주 산으로 가셨고, 바쁘고 힘들어 지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자주 기도 하신 모습을 우리는 성서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지요. 제자들이 예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루가11,2-14).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위로와 기쁨과 평화를 맛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잡념과 무미건조함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요. 기도는 무엇보다도 생각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바쳐지는 것이라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살피고, 마음이 헛갈려 있을 때는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리한 후에 기도를 바치는 것이 분심잡념을 없애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큰 위안을 받고 특별한 체험을 한다고 해도 생활에서 아무런 변함이 없다면 소용이 없지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기도하여 하느님과 이웃을 보다 사랑하게 될 때만이 그 기도가 진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기도가 잘 안된다고 중단하면 바로 거기서 모든 것은 중단됩니다. 꾸준히 항구한 마음으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자료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